

“새로운 숲을 만나다” 시리즈

# 중국 운남성 호도협 차마고도 숲의 천연림

글·사진\_한국산림기술인교육원 원장 배상원

중국 남서부에 자리 잡고 있는 운남성(雲南省)은 면적이 39만㎢가 넘고 인구 4,500만 명인 중국에서 8번째로 큰 지역으로 남쪽으로 북회귀선이 지난다. 남부의 저지대에는 아열대성 기후, 북부의 고산 지대에서는 아한대성 기후 등 다양한 기후를 보여 아열대 지역부터 아한대 지역까지 있어 다양한 숲들이 분포하고 있다. 산지가 많은 지역으로 북부와 서부가 고산지대이고 동쪽은 고원 지역이며, 북쪽은 고도 5,000m의 산들이 분포하고 있다. 최고봉은 북쪽 디친 고원의 표고 6,740m의 카와거보봉이고, 옥룡설산 5596m, 하바설산 5396m 등이 유명하다. 운남성 북서부에는 1997년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된 리장 고성과 서북부에는 2003년 세계 자연유산으로 지정된 운남 삼강병류가 있다.





사진2 = 옥룡설산 가문비나무 숲

세계문화유산인 리장(여강) 고성(麗江 古城)은 1996년 지진에도 거의 피해를 보지 않은 800여 년 전에 세워진 도시로 고건물, 수로와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으로 지정된 나시족이 사용하는 상형문자인 동파문(東巴文)이 유명하다. 하바설산과 옥룡설산의 숲은 해발고에 따라 다양하게 나타나는데, 해발 4,000~5,000m사이에는 고원 초지 및 관목이 있다. 3,000~4,000m 사이에는 가문비나무(*Picea likiangensis*, *P. brachytyla* 등)와 전나무숲(*Abies georgei*, *A. foreesti*), 2000~3000m사이에는 침엽수(*Pinus yunnansis*, *P. densata*)와 상록참나무숲(*Quercus aquifolioides*, *Q. rehderian* 등)이 2000m이하에서는 건조지 하안 관목숲이 있다. 차마고도는 오래된 무역로로 마방(馬幫)이라 불리는 상인들이 말과 야크를 이용해 운남성과 사천성의 차와 티베트의 말을 교환하였다고 하여 생긴 이름이며, 교역물품은 차와 말 외에도 소금, 귀금속, 한약재, 버섯류 등으로 다양하다.

차마고도는 해발 4,000미터가 넘는 험준하고 가파른 길이지만 경치가 매우 아름다운 길로 유명하다. 마방들이 주로 이용하던 곳은 운남성과 사천성에서 시작되는 길으로, 운남성에서는 대리(大理), 리장, 상그리라를 거쳐 티베트로 이어진 4000km가 넘는 긴 거리며, 당나라 시대에 시작돼 1960년 티베트 고속도로가 개통될 때까지 이용됐다. 이중 옥룡설산(해발 5,596m)과 하바설산(5396m)사이에는 가파른 협곡인 호도협에 있는 길이 세계적으로 유명한 트레킹코스가 되어 많은 사람들이 찾는 대표적인 차마고도 구간이다. 호도협을 가운데로 흐르는 금사강(金沙江)은 양자강의 상류로 길이가 16km가 넘고 산 위에서부터 계곡까지의 차이가 3,900m나 되는 협곡으로 호도협에서 가장 폭이 좁은 상호도협은 폭이 30m 정도가 가운데 13m 정도의 큰 바위가 있다. 이는 옛날에 호랑이가 옥룡설산 쪽에서 이 바위를 타고 하바설산 쪽으로 넘어왔다고 하여 호도협이라는 이름이 생겼다고 한다.







호도협외의 차마고도는 하바설산쪽으로 나 있는데, 해발 1,830m 지점에서 출발하여 해발 2,210m에 있는 나시 객잔(게스트하우스)을 지나 산으로 오르다 보면 중간에는 나무들이 별로 없고 손바닥처럼 생긴 선인장(*Opuntia vulgaris*)이 자라고 있다. 호두나무가 계곡부에 자라고 있어 해발이 높음에도 이곳이 온난한 곳임을 보여주고 있다. 완경사지 길을 따라 초지와 관목지를 지나가면 운남송숲이 나타나는데, 수고 10m, 굵기 20cm 정도의 소나무가 뽀뽀하게 자라고 있으며, 중간중간에 큰 소나무들이 자라고 있어 우리나라 소나무숲을 보는 것 같다.

급경사에 구비가 많은 28구비(28 Bands) 길을 오르면 고산지대에 자라는 에델바이스도 길가에 자라고 있고, 천남성(*Arisaema utile*, *A. consanguineum*), 바위돌꽃류(*Rhodiola*) 등이 바위 사이에 자라고 있다. 사면에는 만병초가 무리를 이루고 있으며, 매자나무와 대나무가 관목들도 같이 자라고 있다. 또한 계곡 건너편으로는 옥룡설산의 암벽 봉우리가 나타나고 산봉우리에 만년설이 자리를 잡고 있으며, 봉우리 사이의 급경사 계곡에 하얀 거품을 내며 흐르는 경관을 자아낸다. 산 위로 가다보면 수고 3~4m의 활엽수들이 나타나기 시작하는데 이 활엽수들은 대부분은 상록참나무(*Quercus aquifolioides*)들이다. 28구비 꼭대기를 지나 아래로 내려가는 길 주변으로는 높이 10m 내외 상록참나무와 대나무가 무리를 이루고 있고 그 사이에 자귀나무도 같이 자라고 있다.

사진7 = 숲바닥의 에델바이스



사진4 = 운남송 숲

사진5 = 구름끼 옥룡설산

사진6 = 양산모양 수관의 운남송





사진8 = 운무속의 운남송 숲

길 주변으로는 에델바이스가 줄지어 있고 제비고깔꽃, 분홍색 도라지모시대도 같이 자라고 있다. 아래로 더 내려가면 운남송이 상록 참나무위로 한두 그루씩 나타나는데 소나무가 많이 떨어져 활력이 없거나 고사한 소나무들이 자주 나타난다. 여기서도 소나무가 쇠퇴하고 그 자리를 활엽수들이 차지하는 천이가 진행되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아래로 더 내려가면 운남송 숲이 나타나는데, 이곳의 운남송 숲에는 굵기가 한 아름이 되고 크기도 20m 정도 되는 큰 나무들이 줄지어 자라고 있으며, 빈 공간에는 작은 소나무들이 자라고 있다. 운남송 수령이 많아서인지 수관이 삼각형이 아닌 양산처럼 둥그런 모양을 이루고 있어 전형적인 운남송 노령목의 모습을 보여준다. 운남송 노령목 아래에는 에델바이스와 고사리도 자라고 있어 특이하게 보인다. 운남송 숲을 지나면 다시 상록 참나무숲이 나타나는데

우리나라와 같이 이곳에서 생육조건 좋지 않은 능선부는 소나무, 생육조건 좋은 아래쪽은 참나무 자라는 것 같다. 숲길을 더 가면 해발 2,280m에 차마객잔이 나오는 이 주변에 마을이 있어 산록부에는 밭들이 있는데 경사가 급해서 다락밭을 일구어서 주로 옥수수를 재배하고 있다. 차마객잔을 지나면 주변에는 숲이 거의 없고 경사가 완만한 곳에 초지나 경작지가 주로 분포하고 있다. 호도협 차마고도는 전체 차마고도중 짧은 구간으로 해발 2,000~2,700m 사이에 있어 계곡 건너편의 옥룡설산과 협곡부의 호도협을 한눈에 볼 수 있는 곳이다. 나시객잔(해발 2,210m)과 차마객잔(해발 2,280m) 사이에는 운남송 숲과 상록 참나무숲이 있을 뿐만 아니라 호두나무, 자귀나무, 선인장 등 온난한 곳에 자라는 나무와 에델바이스와 같은 고산 식물이 자라고 있는 생태계의 보고이기도 하다.